遺産되는 상처, 遺産되는 트라우마*

- 임철우의 「붉은 방」(1988)에 내재한 '알레고리아(allegoria)' 읽기 -

손미란**

〈차 례〉

1. 국가폭력의 또 다른 얼굴
2. 지속되는 '한국전쟁', 유산(遺産)되는 트라우마
3. 비가시적 대상과 가시적 폭력의 대상
4. 맺음말 : 역사와 정치로서의 문학 읽기, 상처치유의 시작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 God is in t he detail"
-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국문초록】

'임철우'는 '오월 문학'의 대표적 작가이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5월 항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때 본고는 임철우에게 이상문학상(1988)을 안겨줌으로써 그의 입지를 더욱 다져준 작품

* 이 논문은 2018년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동아시아의 전쟁과 폭력, 그리고 평화'란 주제로 열린 정기학술 발표회(2018년 1월 17일)에서 「'임철우 문학'의 국가폭력 양상 읽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인 「붉은 방」을 통해 세대상처와 그 치유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소설 「붉은 방」이 보여주는 치유방식이 지금 우리가 현재진행형에 있는 역사적 문제를 치유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제대로 마주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소설 「붉은 방」 읽기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밝혀진 사실과 숨겨진 진실이다. 가시화된 사실과 비가시화 된 진실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현재적 사건(들)의 서사화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상처를 사실 그대로 확인하는 것은 「붉은 방」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일이기에 중요하다. 우리는 가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 'allos(다른)-agoreuo(말하기)', 즉 비가시화된 알레고리아(allegoria)를 찾아야 한다.

임철우는 어디든 '기괴하고 기묘한 붉은 방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붉은 방」이 지닌 '정치성'은 이 소설이 왜 지금, 현재적 치유를 위해 읽혀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이때 '문학의 정치'는 작가의 정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작가가 자신이 사는 시대에서 정치적 또는 사회적 투쟁을 몸소 실천하는 참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문학을 통해 역사의 상흔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역사적 기억을 토해냄으로써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줄 것이다.

주제어: 임철우, 붉은 방, 알레고리아, 가시화, 비가시화, 세대 유산, 트라우마, 상처, 오월 항쟁

1. 국가폭력의 또 다른 얼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은 끝났지만 끝난 전쟁이 아니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비가시적 전쟁으로서, 해방 이후 대한민국근현대사와 겹쳐지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불거진 비가시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국문학에 항상 영향을 끼쳐왔다. 오히려 전쟁직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데올로기 전쟁이 남긴 흔적이 더욱 짙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문학(90년대 후일담 문학 포함)에 들어서서 우리에게 내재된 역사적 상처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처는 또 하나의 상처를 만난 순간, 보이지 않는 상처를 가시화시킨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전쟁'이란 커다란 역사적 상처는 전쟁 자체가 주는 상처뿐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발생하게 되는 다른 상처들과 만나면서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을 점차 잃어가기 시작한다. 이는 구체적인 분노의 대상을 잃게 만드는 폭력의 일상화가 바로 '국가폭력'의 또 다른 얼굴임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는 국가폭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즉 비가시적 상태로 일상을 점철한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서 본고가 호명한 작가는 '오월 작가'로 유명한 '임철우'이다. 1981년 「개도둑」으로 등단한 임철우는 5월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불리고 있지만 그의 작품은 사실 5월 항쟁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

임철우의 소설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한국 분단 현실에 대한 조명과 광주항쟁의 소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의 문학이 가진 특이성은 이전의 분단 소설 및 전쟁 소설과는 분명히 다르다. 우선 임철우의 작품세계는 일차적으로 한국전쟁의 비극을 증언하고 분단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이나 어린시절의 전쟁 기억에 따른

트라우마 묘사를 넘어서는 현재적 문제를 담지한다. 그가 5월 문학의 정점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모든 문학에 내재한, 설령 가시화되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관통하고 있는 '그 날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그 날'은 꼭 '5·18 광주항쟁'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의 작품세계에는 '광주'의 그날 외에도 다양한 시간들이 공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임철우 작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오월'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여기엔 이유가 있다. 임철우의 5·18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당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움과 죄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나는 5·18때의 체험으로 인해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글을 쓰기는 했어도, '내 삶을 글쓰기에 일치시킨다'라는 작가로서의 소명의식 정신이 생겨난 것은 5·18을 겪으면서부터입니다. …·그 당시 신과 약속했던 것은 '제발 쓰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사이'에 머물러, 소설을 쓰다」, 『문학과 경계』 제4권 2호, 2004, 60~61쪽.)라고 말한 만큼, 그는 5월의 경험을 통해 작가가 되었고 그의 작품세계에서 '오월'이 그의 세계관을 형성케한만큼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5월 18일' 묘사가 전면화된 기록 『봄날』까지 그의 작품 논의는 거의 대부분 '오월' 관련 논의에만 집중되었다.[1)]

하지만 임철우가 가진 '오월'이라는 메타포를 그리는 사유방식

1) 27세에 체험한 광주항쟁의 '전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그의 죄의식은 그에게 꾸준히 그날의 현장을 되살리는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에는 「그들의 새벽」(1981), 「동행」(1984), 「봄날」(1984), 「사산하는 여름」(1985), 「불임기」(1985), 「관광객들」(1987), 「붉은방」(1988), 「직선과 독가스」(1989)가 있다. 1997년에는 5·18의 총체적 복원이라고 평가받은 장편소설 『봄날』을 통해 대표적인 '오월 작가'로 우뚝 섰으며, 2004년에는 『백년여관』을 내놓기까지 했다.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때 본고가 주목한 작품은 임철우에게 이상문학상(1988)을 안겨줌으로써 그의 입지를 더욱 다져준 작품인 「붉은 방」이다. 그리고 「붉은 방」 직후 발표한 「직선과 독가스」(1989)와 1995년에 발표한 「곡두운동회」를 함께 읽음으로써 「붉은 방」이 지닌 다면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철우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역사적 재현은 1950년대 때부터 이어져 온 이데올리기적 상처와 연결된다. 시간 지표에 맞추어 살펴보았을 때, 임철우의 소설은 언제나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취한 게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우찬제의 언급처럼 "그의 소설에서 과거사는 단순한 배경막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구체적 전신(前身)으로서 역사적 원인의 근거를 제공하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2]을 형성케 하는 핵심요소이다. 특히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한국전쟁'은 일그러진 역사적 시간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볼 때, 아버지 세대가 가진 상처를 그대로 물려받은 「붉은 방」과 「직선과 독가스」의 주인공이 기억해야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곡두운동회」는 두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작가가 지닌 역사적 연속성의 이해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국가폭력의 문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적 전쟁으로 나타날 때 더 큰 폭력의 양상을 띤다. 그러므로 비가시화된 개인의 사적 전쟁이 이후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가시화된 상처로 나타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2세대, 3세대로 이어진 연속된 전쟁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걸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국가폭력은 몇 십 년이 지난 후, 그 형상이 보이지 않는

2) 우찬제, 「역사적 상처와 서정적 치유 - 임철우의 소설」, 『문학과 사회』(2010년 겨울호), 제23권 제4호, 2011, 426쪽.

상태에서도 가시화되어 다른 얼굴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 상처를 지우기 위해 혹은 지워진 척하기 위해 더욱 면밀히 작동한다. 이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낼 때 의도적 망각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움직이는 것과도 같다. 즉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명확하게 표현된 '그날 그때'가 아닐지라도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세대 유산의 고리를 읽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임철우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세계관이 역사적 기억에 따른 트라우마와 그 치유 방식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 지속되는 '한국전쟁', 유산(遺産)되는 트라우마

1988년에 발표된 「붉은 방」은 한국전쟁 기간에 부모를 제외한 일가족 모두를 인민군에게 몰살당한 '최달식'을 내세움으로써 80년대 이후 불거지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의 근원에 '한국 전쟁'이 놓여 있음을 강조한다. 「붉은 방」은 끈질기게 작동하는 시간의 연속성을 통해 개인의 일상에서 작동하는 '시간의 흔적'을 재현하고 있다.[3]

---

3) 「붉은 방」 이전에도 임철우는 「붉은 방」에서 묘사되는 개개인의 일상에 스며들지 못한 사적공간들의 거리(距離)에 대해서 표현한 바 있다. 1984년 에 발표한 「동행」은 「붉은 방」의 주인공 오기섭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지명수배 내려진 친구와 고향으로 가는 동행을 그린 「동행」은 친구와의 '거리'를 표면화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붉은 방」의 오기섭 또한 친구에 대한 한 편의 공감 뒤엔 일상을 파괴할 지도 모를 그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진 나약한 일상인이다. 하지만 비가시적 대상에 대한 분노가 가시화될 때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붉은 방」은

소설 「붉은 방」의 중심 서사는 '오기섭'과 '최달식' 두 인물의 일인칭 시점을 대조적으로 번갈아 보여주면서 진행된다. 일종의 교차시점인데, 교차시점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한 곳에 쏠려 있지 않음을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동일한 사건이 다른 시점으로 두 번 묘사됨으로써 독자들은 같은 공간 다른 일상에 서 있는 두 인물을 좀 더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소설이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기섭이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오기섭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사내들에게 끌려가 사면이 붉게 물든 '붉은 방'에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정치적인 문제로 도주 중이라는 친구의 지인을 단 며칠 몰래 집에 재워준 것이 감금과 고문의 이유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은 최달식의 비인간적인 고문 끝에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오기섭'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된다.

폭력을 행하는 최달식 뿐 아니라 오기섭 또한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오기섭에게는 북으로 월북한 '큰아버지'라는 존재가 잊고 살아야하지만 언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불안의 결정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혹시? 순간 가슴이 텅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 온다. 그와 함께 누군가의 초췌한 얼굴이,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한 남자가 불현 듯 시야로 떠오른다. 그것은 철이 들면서부터 내 의식의 밑바닥에 깊고, 어두운 흉터로 도사리고 있다가, 어느 때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숨 막히게 하던 바로 그 모습이다.
>
> 그는 바로 내 큰아버지이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퇴색

「동행」과는 명확히 그 궤를 달리한다.

> 한 사진 한 장 들여다본 기억도 없는데도, 그는 항상 내 의식의 음습한 한 모퉁이에서 그렇듯 검은 한복 차림에, 윤곽이 분명치는 않지만 초췌하고 우울한 얼굴 모습으로 말없이 서 있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일까. 북으로 올라갔다는 소문만 남긴 채 종적이 없다가 지금에야……? (…중략…) 혹시 간첩이 되어? 모종의 어마어마한 지령을 받고? 서, 설마……나는 두 손이 부르르 떨리고 있음을 깨닫는다. **지금껏 평범한 내 일상의 내부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하나의 가정이 드디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다.**
>
> (임철우, 「붉은 방」, 26~27쪽)[4] (강조 및 밑줄은 모두 인용자.)

처음에 오기섭은 갑자기 찾아온 사내들 앞에서 그들이 나타난 이유를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 듯 떠올라선 안 되는 실체가 그의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현실이 되어선 안 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 바로 그의 '큰아버지'가 생각난 것이다. 오기섭에게 큰아버지는 현실화되어선 안 되는 존재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야'라는 그의 예상과 다르게 오기섭은 현실 앞에서 '큰아버지'의 커다란 그늘을 마주하게 된다.

> 쯔쯧. 우린 다 알고 있다니깐 그래. 참, 오성수가 누구지? 당신 큰아버지라는 친구 말야. 여기,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육이오때 월북한 걸로 돼 있구만. 빨갱이 중에서도 꽤 거물이었던 모양인데, 어때, 안 그런가?
>
> 순간 내 가슴 한귀퉁이 어딘가에서 쿵, 소리와 함께 커다란 구멍이 뚫린다. 그리고 그 구멍 속으로 들여다보이는 칠흑의 암흑,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그 완벽한 암흑의 함정- 한번 발목을 잡혀 끌려들어가면, 두 동강이 난 이 땅의 그 누구도 결코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이 내 눈앞에서 서서히 입을 벌리기 시작하고 있음을

4) 임철우, 「붉은 방」,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1988. 12회), 문학사상사, 1988.

예감한다.

(임철우, 「붉은 방」, 81쪽.)

하지만 사실 그가 '붉은 방'에 오게 된 이유는 '큰아버지'가 아니다. 이는 '큰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오기섭을 '붉은 방'에 올 수밖에 없음을 인정케 하기 위해 호명된 비현실적인, 즉 비가시 존재일 뿐임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기섭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그의 '큰아버지'가 등장한다는 데 있다. 임철우는 오기섭이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고 말한 직후 그에게 '오성수'라는 존재를 가시화시킨다.

아버지 세대의 그늘은 「붉은 방」이 발표된 다음 해에 나온 임철우의 또 다른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직선과 독가스」(1989)에서도 여지없이 작동된다. 한 신문사에서 시사만평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를 주인공으로 한 1인칭 대화체 소설인 「직선과 독가스」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인공 허상구가 자신의 정신을 감정해주는 선생님에게 본인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듯 말하는 소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의식을 따라가는 이 소설은 일상을 살던 한 개인이 거대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을 병리적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핵심은 사회를 비판하는 만화를 그린 허상구에게서 자백을 강요하던 이들이 그를 풀어줄 때 한 다음과 같은 말이다.

> 그 텅 빈 사각형의 하얀 방을 나서려는데 사내가 돌아서며 어깨를 다정스레 잡더니 내 눈을 정면으로 들여다보는 거였지요. 「그런데 선생. 거, 앞으로는 잘 좀 생각해 가면서 그려야겠습니다. 하핫. 뭐 그렇다고 오해는 마시고……. 참, 허성수씨가 선생의 큰아버님 되시던가?」
>
> (…중략…) 그 자의 입에서 큰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불쑥 뛰쳐나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숨을 내쉬기가 어려웠어요. 난 벌써 오래 전에 그 이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과 일가 친척들간에는 이미 들먹이기를 꺼려하는, 그래서 어느덧 흉흉한 꿈얘기처럼 아득하게 망각되어 버린 이름이었으니까요.

(「직선과 독가스」, 199쪽.)[5]

「붉은 방」의 오기섭이 그랬던 것처럼 허상구에게도 '큰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는 망각된 인물이자 기억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선택적 망각의 존재인 '큰아버지'가 그의 앞에 나타난 순간, 허상구는 이제 일상을 그 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음을 느낀다.

그렇다면 임철우 문학에서 한국전쟁이 모든 것의 시작지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전쟁이 모든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연속성이다.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 이후, 곳곳에 남은 전쟁의 흔적은 그 이후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현상들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현상만이 남아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현상이 시작된 지점부터 다시 기억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임철우의 소설에 「곡두운동회」(1995)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최남단에 있는 작은 마을에 해방군이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은 일종의 반전소설이라할만큼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해방군이 아니었고 모든 것은 불순분자를 색출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이다.

폭발물 사건으로 잡혀 들어갔던 약방집 둘째아들과 대장장이, 소금장수, 애꾸눈 구두 수선공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난 다음 날, 해방군의 군가가 울려 퍼지고 갑자기 세상이 바뀐다. 해방군의 군가가 울려 퍼지고 새 세상이 왔다고 가장 기뻐한 건 소금

5)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1989년도 13회), 문학사상사, 1989.

장수와 대장장이, 애꾸눈 구두 수선공과 푸줏간집 곰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심을 한 유일한 사람인 약방집 둘째아들은 한밤에 찾아온 해방군의 군복을 입은 자들의 손에 이끌려 사라지고 없다. 곰보에게 "우리 세상이 되었단 말이여. 나나 자네같이 억울하게 압박과 핍박만 받고 살아온 놈들이 어서 나와서 해방 전선에 솔선수범 앞장을 서야제."라고 말하는 소금장수의 말은 당시의 상황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유추하게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은 푸줏간집 곰보다. 소금장수의 말에 '핍박이니 억울이니' '해방전선이 어떻고'하는 건 '도통 애매모호할 뿐'이라고 생각한 곰보는 '소금장수의 의기양양한 얼굴과 흰 머리띠, 완장 그리고 그 완장에 씌어 있는 해방군 어쩌고 하는 글자'을 생각하며 아내의 속치마를 찢어 머리에 두르고 밖을 뛰쳐나간다. 곰보에게 중요한 건, 지금껏 쌓여온 핍박도 억울함도 사상도 아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불쌍해야하는 이유를 새삼스레 찾아보며 소금장수를 뒤따라갈 뿐이다.

그렇게 마을에는 때 아닌 '곡두운동회'가 열린다. 새끼줄로 분리해 둔 공간으로 적군 병사의 엄지손가락 손짓 하나에 마을 사람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 매부리코 장교는 먼저 주민들 가운데에서 어린 아이들과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을 골라내어 따로 대열 밖으로 분리시켜 모아두도록 지시했다. … 이때부터 주민들에 대한 선별작업(選別作業)의 임무는 모두가 소금장수, 대장장이, 구두 수선공을 위시한 삼십여 명의 완장패거리들이 맞게 되었다.
>
> (……) 완장 패거리들이 십오 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과 환갑이 지난 노인네들을 골라내어놓고 나서 보니 그 수효가 대략 전체의 삼분의 일쯤 되었다. 그렇지만 완장들은 그들 노인네들 중에서 다시 스무 명 가량을 따로 색출해냈다. 그 노인들은 대개 읍장, 면장, 경찰관, 우체국장, 소방서장 등등의 관리들을 아들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과거에 이런저런 감투를 써본 경력이 있는 사람들, 혹은 재산이 많아서 인심

> 을 잃은 이들도 끼여 있었다. 또 예배당 종지기인 집사와 선창가 여관집 늙은이같이 지극히 평범한 인물도 끼여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으레 완장 패거리들 중의 누군가로부터 평소에 미움을 받아오고 있던 까닭이었다.
>
> (「곡두 운동회」, 42~43쪽.)[6]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이데올로기전으로써의 불순분자 색출 선별작업은 완장을 찬 이들의 손에 넘어간 순간 사상전과는 동떨어진 개인의 사적 전쟁이 되고 만다. 이 모든 선별작업이 해방군을 자처한 국군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의심한 건, 사상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약방집 둘째 아들뿐이다. 하지만 그는 색출작업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라지고 소금장수와 대장장이, 곰보와 같은 무지한 자들만 아무 의심 없이 불순분자 색출 연극에 속아 넘어간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극적 상황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하는 바는 '사상'도 '의미'도 없는 평범하다 못해 무지한 자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곡두운동회」에는 이름을 가진 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작가는 「곡두 운동회」의 마을은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다양한 얼굴을 한 사람들을 대변한 마을인 것이다.

개인의 사적 감정이 사상전쟁으로 둔갑해버리는 것처럼 한 순간에 이들은 모두 핍박받는 자들에게서 완장을 찬 사람들로, 그리고 다시 불순분자가 된다. 매부리코 장교의 치켜 올려진 팔과 함께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국군의 트럭 세 대가 운동장으로 들어선 순간, 소금장수와 푸줏간집 곰보, 대장장이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침투해 있던 불순분자인 것이다.

---

6) 임철우, 「곡두운동회」(1995), 『아버지의 땅』, 문학과 지성사, 1984.

> 저만치 운동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광경을 입을 벌린 채 시조 지켜보고 있던 정미소집의 열 살짜리 막내아들의 눈에는 그것은 흡사 청군 백군이 한데 모여 운동회날의 폐회식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전쟁이 끝이 났고 바닷가 그 작은 마을에도 민첩한 도둑처럼 다시 평화가 숨어들어왔다. 그 동안 마을 주민의 전체 수효는 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있었지만,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까지에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래도 해마다 팔월 어느 날이면 마을의 꽤 많은 집들마다에는 한꺼번에 똑같이 제사상이 차려지곤했지만, 무심한 세월은 사람들의 쓰디쓴 기억의 잔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타넣어주었으므로 오래지 않아 그들은 어느해 한여름 대낮의 그 기괴한 곡두 놀음쯤이야 쉬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
>
> (「곡두 운동회」, 60~61쪽.)

열살짜리 아이의 눈에 비친 이 모든 희극적 상황은 처음부터 운동회 한마당 같을 뿐이다. 그리고 이 운동회에서의 기억은 모두가 기억하지 말아야할 일이자 무엇이 '불순분자'인지를 학습하는 순간이 된다. 물론 마을에서 운동회가 열릴 때마다 청군 백군을 응원하는 만세 소리에 깜짝 놀라 별안간 불안한 시선으로 서로를 훔쳐보는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어린 꼬마들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머리는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몸은 두려움을 기억하기 마련이고 그렇게 각인된 불순분자에 대한 두려움은 이후 이 마을, 혹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많은 마을을 세대상처의 고리에 들어가게 한다.

마을 사람들이 선택한 의도적 망각은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붉은 방」의 오기섭과 「직선과 독가스」의 허상구가 '큰아버지'를 알고서도 모르는 척, 살기위해 망각해야 했던 것처럼 「곡두운동회」 속 최남단의 작은 마을은 '그 날'을 잊어야 한다. '그 날'은 국군에 의

해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그 날'이다. 작가는 「붉은 방」과 「직선과 독가스」에선 잊어야하는 아버지 세대의 망각된 기억으로서의 그날을 「곡두운동회」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비가시적 대상과 가시적 폭력의 대상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한 청년이 사망했다. 1987년 5월 18일 광주항쟁의 추모미사에서 김승훈 신부에 의해 폭로된 안기부, 법무부, 내무부, 검찰, 청와대 비서실 등이 모두 가담한 이 은폐 조작 사건은 6월 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될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다음은 1987년 5월 22일 ≪동아일보≫에 실렸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일지' 전문이다.



朴鍾哲군 拷問致死 사건日誌

△1월14일오전6시40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차군을 연행.
△14일오전11시20분=차군 고문으로 조사실에서 사망.
△14일오전11시45분=중앙대부속용산병원내과의 吳演相씨 조사실에서 차군 검안.
사망확인.
△15일오후=姜民昌치안본부장 차군사망사실확인, 「조사중 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며 쓰러졌다고 발표.
△15일밤9시=한양대병원에서 차군사체부검실시, 목과 육조령에 차군의 목을 눌러 질식 사망케했다고 발표. 趙 姜등 2명구속.
△20일=서울대생 5백여명이 학교내에서 차군추모제 개최, 全斗煥대통령 고문치사 사건에 유감표시, 新民黨 전기고문조작있다고 주장. 이날 오후 金宗鎔내무부장관과 姜民昌치안본부장 경질.
△23일=검찰, 고문경찰을 사가 차군을 물고문하다중 가슴에 피멍이 든것을 확인.
△16일오전=차군유해 碧 蹄화장터에서 화장.
△17일=전두, 관계기관대책회의후 검찰이 「경찰관들이 차군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것이 확실하다」며 관련경찰관을 구속할 방침을 시사.
△19일=치안본부, 대공수사단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 차군을 물고문하다중 대동하지 않은채 현장검증.
△24일=고문경관 2명기소.
△26일=재야인사 朴형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5명 구속.
△2월7일=재야단체주최 차군추모제 서울 奬山 光州 등 전국 에서 열려, 검찰 추도회관련 33명 구속.
△3월3일=차군49재및추모미사가 명동성당에서 김승훈 신부에 의해 폭로.
모대통령 경찰지도로 무산, 검찰 이와관련, 27명 구속.
△4월23일=차군 백재(百哉)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등 5명 구속.
△5월18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가담경찰이 더 있다」는 내용의 성명발표.
△5월21일=검찰, 고문가담경찰관 3명 추가구속내용 등 재수사결과 공식발표.

1월 14일 오전 6시 40분=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5과 박군을 연행.

14일 오전 11시 20분=박군 고문으로 조사실에서 사망.

14일 오전 11시 45분=중앙대부속용산병원내과의 오연상씨 조사실에서 박군 검진, 사망확인

15일 오후=강민창 치안본부장 박군 사망사실 확인, **「조사중 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며 쓰러졌다」**고 발표.

15일 밤 9시=한양대병원에서 박군 사체부검실시, 목과 가슴에 피멍이 든 것을 확인.

16일 오전=박군 유해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

17일=정부, 관계기관대책회의 후 검찰이 "경찰관들이 박군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며 관련경찰관을 구속할 방침을 시사.

19일=**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한경 경위와 마진규 경사가 박군을 물고문하던 중 욕조턱에서 박군의 목을 눌러 질식 사망케했다**고 발표. 조, 강 등 2명 구속.

20일=서울대생 5백여명이 학교 내에서 박군추모제개최, 전두환 대통령 고문치사사건에 유감표시, 신민당 전기고문흔적 있다고 주장, 이날 오후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 경질.

23일=**검찰, 고문경찰을 대동하지 않은 채 현장 검증.**

24일=고문경관 2명 기소.

26일=재야인사 박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 발기인 모임.

2월 7일=**재야단체주최 박군 추모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열려, 검찰 추도회관련 33명 구속.**

3월 3일=**박군 49제 및 추모대행진 경찰 저지로 무산, 검찰 이와 관련, 27명 구속.**

4월 23일=박군 백재(百齋)

5월 18일=**천주교정평사제단, 「고문가담경찰이 더 있다」는 내용의 성명발표.**

5월 21일=검찰, 고문가담경찰관 3명 추가구속내용 등 재수사결과 공식발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일지」(≪동아일보≫, 1987.5.22.))

사건 일지를 모두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항쟁이 촉발된 것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여전히 현재진행형 사건이라는 데 있었다. "조사 중 경찰관이 책상을 '탁'치니 '억'하며 쓰러졌다"는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발언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탁 하고 친다'라는 비가시적 행위가 가진 위력은 엄청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밝혀진 사실과 숨겨진 진실이다. 가시화된 사실과 비가시화 된 진실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임철우의 「붉은 방」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즉 알레고리아(allegoria)[7], allos(다른) agoreuo(말하기)를 통해 '데드마스크'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찾는 것이 소설 「붉은 방」의 시발점이다.

위의 사건 일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 가장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던 것은 '물고문'이었다. 소설 「붉은 방」은 '오기섭'이 '물고문' 당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기섭에게 '물고문'은 그의 일상과 비일상 경계선에 서 있는 것으로써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다. 하지만 이 소설의 중요성은 이 소설이 얼마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유사한가에 있지 않다. 물론 현재적 사건(들)의 서사화라는 측면

---

7) 알레고리아(allegoria)는 그리스어 allos(다른)과 agoreuo(말하기)가 합성된 것이다. 흔하게는 영어식 표현인 '알레고리allegory'가 사용되고 있으나 '다른-말하기'가 지닌 두 겹의 의미층을 강조하기 위해 본고는 '알레고리아'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임철우의 소설에서 '알레고리'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임기」와 「사산하는 여름」은 '오월'의 알레고리 작품으로 많이 읽혀왔다. 그 날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지만 알레고리의 독법으로 읽으면 그 날만을 얘기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붉은 방」은 알레고리 소설이면서도 다른 소설들과는 다른 알레고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 그 특이성이 있다. 명확히 표현되는 '그 날'만으로는 「붉은 방」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에서 역사적 상처를 사실 그대로 확인하는 것은 「붉은 방」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확인하는 일이기에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소설 「붉은 방」이 던지는 현재진행형 문제제기는 소설이 실제 사건을 떠올릴 이상으로, '붉은 방'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 일상 속에서 엄연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데 있다. 즉 실제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를 넘어서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재한 역사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형상화되어(때로는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일상에 뿌리내려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붉은 방'은 오기섭이 서 있는 공간의 이미지이자 오기섭과 최달식이 지닌 트라우마의 이미지, 세대 상처의 알레고리아이다.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일상들 그 속에서 비현실적인 존재가 된 '오기섭'과 세대가 전한 상처 안에서 살고 있는 '최달식'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철수하는 인민군에 의해 조부모를 비롯해 온 가족을 몰살당한 경험을 가진 최달식은 한국전쟁이 남긴 세대 상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고문을 당하는 오기섭이나 고문을 하는 최달식이나 결국 '비일상'에서 살고 있는 건 다르지 않다.

소설 「붉은 방」이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오기섭의 비일상이다. 평범한 일상을 지내던 오기섭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사내들에게 끌려가 사면이 붉게 물든 '붉은 방'에서 고문을 당하게 된다. 정치적인 문제로 도주 중이라는 친구의 지인을 단 며칠 몰래 집에 재워준 것이 감금과 고문의 이유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은 최달식의 비인간적인 고문 끝에 비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오기섭'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여주면서 마무리된다.

다음 인용문은 소설 서두의 한 부분으로서 오기섭이 서 있는 공

간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 모든 게 그저 그렇군. **오늘도 변한 거라곤 하나도 없어.** 건성으로 신문을 뒤적이며 나는 중얼거린다. **세상은 늘 그대로인 모양이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 전날도 그랬던 것처럼, 지극히 상투적인 사건들이 역시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언어들로 그저 그렇게 맥빠지게 그려져 있을 뿐이다. (…중략…) 오른쪽 한귀퉁이엔 어제 있었다는 대학가의 시위에 관한 몇 줄 안 되는 기사가 붙어 있고, 인천과 마산 어딘가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최루탄 분말을 잔뜩 들이마셨다는 구절이 마지못해 간신히 끼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짤막한 논평하나 실려 있지 않다.
>
> 요즘 신문은 얼굴이 없고 기사 속엔 목소리가 없다구. 몽땅 껍데기뿐야. 너나 없이 껍데길 뒤집어쓰고서 너도 나도 다투어 껍데기 행세만 하는 거라구. 어젯밤 술집에서 그렇게 악을 쓰듯 했던 게 누구였더라. 영어과 유선생이었던가. 그런데 왜 그때 그 얘길 하는 유선생의 얼굴 역시 똑같은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 몰라. 아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들 모두가 하나같이 두껍고 무표정한 **데드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어. 문득 그런 생각을 떠올리며, 나는 정작 하단의 강력강장제 광고며 영화광고 따위들은 꼼꼼히 훑는다. 하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새로울 건 하나 없다.
>
> (임철우, 「붉은 방」(1988), 19~20쪽.)

세상은 '변한 거라곤 하나' 없이, 신문도 별다른 점 없이 매일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오기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을 지루해하며 세상사람 모두가 껍데기라고 소리치던 영어과 유선생의 얼굴도 '데드마스크'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데드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오기섭이나 작가인 임철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붉은 방」으로 이상문학상을 받고 다음과 같은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러기에 나는 늘 스스로에게 되묻곤 한다. 저 폭포처럼 쏟아지는 폭력과 거짓과 음모의 벽 앞에 너는 지금

당당하고 떳떳하게 마주 서 있는가."(임철우, 제12회 이상문학상 수상소감 「저 거대한 덫 사이를 더듬거리며」(1988) 중에서)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보여진 것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겠다는 작가의 말은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말해준다.

'오월'의 그 날을 '그 때 그 시간'에 있는 이들이 다른 공간에서서 몰랐던 것처럼 박종철로 대표되는 이들의 죽음은 일상 속에서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했다. 이는 오기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설 「붉은 방」이 가지는 강렬한 이미지는 일상 속의 비일상화를 표현할 때, 이 소설이 보여주고자 하는 알레고리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현실 속에 있는지를 보여줄 때 그 힘을 발휘한다.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오기섭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고 일상 속에서 항상 하는 하루하루의 걱정을 안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다짜고짜' 나타나 그의 '왼쪽 어깨를 꽉 움켜' 쥔 사내는 오기섭에겐 나타나선 안 되는 거였다. 하지만 사내들에게 끌려가고 얼마 있지 않아 오기섭은 비현실이 곧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한다. 이, 이럴 수가……! 이건 악몽이야. 난 지금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게 틀림없어. 나는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린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멍청히 서 있다. 피의 지옥—맨 처음 뇌리 속에 떠오른 느낌은 바로 그랬다. 나는 마주하고 서 있는 그 풍경을 차마 현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붉은 방**. 사면 벽과 천정까지가 온통 시뻘건 선지피 빛깔의 페인트로 칠해져 있는 것이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뭉크의 그림. 화면 전체가 한꺼번에 무서운 속도로 불에 녹아들고 있는 것처럼 기괴하게 뒤틀리고 있는 속에서, 역시 똑같이 뒤틀리고 일그러진 해골 같은 사내 하나가 두 손으로 제 귀를 틀어막은 채 무어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림 말이다.
>
> (……) 나는 그만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어진다. 이 기괴한 빛깔로 채

색된 방 안에선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다. 이것은 광기야. 미치광이의 장난이 틀림없어. 금방이라도 구역질이 치밀어오를 것 같은 느낌에, 나는 문 쪽을 향해 비칠비칠 뒷걸음질을 친다.

어딜 가. 그대로 있어!

(임철우, 「붉은 방」, 51~52쪽)

분명 아무 잘못이 없으니 금방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오기섭의 기대는 두 눈을 의심케 할 만큼 비현실적인 곳에서 이질적인 한 사내를 마주한 순간 사라진다. 천천히 눈을 뜬 오기섭의 시야를 가득히 물들이는 건 '쏟아져 내려오는 단색의 세계' '핏빛 세상' 이다. '뭉크의 그림 속에 있는 사내가 온몸에 피를 뚝뚝 흘리며 이 방을 찾아들어와 벽과 천장을 온통' '피칠갑'을 해 놓은 듯한 '붉은 방', 그 곳에서 오기섭은 '최달식'을 마주한다. '이건 분명 미친 자의 짓'이라고, '제정신을 가진' 자라면 '이런 구역질나는 짓을 행여 생각'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보지만 "그대로 있어!"라는 최달식의 목소리는 오기섭에게 다가 선 비현실적인 공간이 실제 공간임을 깨닫게 해준다. 그의 눈 앞에 진짜 '데드마스크'를 한 자가 나타난 것이다.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하게 만드는 핏빛 '붉은 방'에 있는 최달식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차갑고 단단'한 음성이다. 붉은 벽을 배경으로 한 채, 검은 가죽잠바를 걸친 사내의 얼굴은 석고처럼 유난히 하얗다. 오기섭은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이곳에 자신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느끼지 못한다. 그만큼 최달식은 오기섭에게 비현실적인 '붉은 방'만큼이나 이질적인 존재다.

오기섭이 '붉은 방'에서 가장 먼저 강탈 당해야하는 것은 '인간다움'이다. 최달식은 고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의 모든 옷을 벗기는데, 속옷까지 모든 벗겨져 알몸이 된 순간 오기섭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강탈당해 버리

고 말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조금이나마 눈 앞에 있는 상대에 대해 일었던 분노가 허망하게 스러져 버리고 마는 순간이기도 하다.

「붉은 방」에서 오기섭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과 '비일상'의 모호한 경계이다. 그 단적인 예로 소설은 비일상 속에서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는 경관들의 모습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는데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오기섭의 비일상과 최달식의 이질성은 그 대비로 인해 더 강조 될 수밖에 없다. 사내들은 '참으로 태연스레' 오기섭을 끌고 가고 고문하면서 집에 있는 막내 아들의 감기를 걱정한다. 막내가 몸이 약해서 걱정이라며, 코피를 자주 흘려서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내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오기섭을 상대로 물고문을 한다. 이 모든 서사 전개는 오기섭의 '의식 흐름'에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다. 사내들의 목소리와 TV 속 음성들과 고문을 당하는 감각이 혼용된 상태로 1인칭 시점의 오기섭에 의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일상과 비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사라지는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 알몸뚱이로 사내들의 엄청난 악력에 완전히 결박당한 채, 샤워꼭지는 오기섭의 얼굴을 정확히 겨냥하고 엄습한다. '쏴앗, 쏟아져내리기 시작하는 물줄기, 물줄기……', 짜릿한 고통은 순식간에 그를 엄습한다. (……) 암, 당당하게 굴어야해. 주문을 외듯 그렇게 혼자 다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 **지금 저 자들의 눈에 나는 단지 한 마리의 짐승에 지나지 않을 뿐이리라.** 언젠가 여름 날, 개 잡는 광경을 본 적이 있다. 개는 자루에 넣어져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어깨 없는 런닝셔츠를 입은 사내 셋이 몽둥이와 팽이로 그것을 미친 듯 두들겨패었다. 자루 속에서 날뛰던 개는 이내 축 늘어지고 말았다. 자루 밑으로 빨간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
> (임철우, 「붉은 방」, 76~77쪽)

> 아이구, 그나저나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것저것 떼고나니깐 마누라 얼굴 보기가 민망하더라구. 어이, 그쪽 좀 잘 잡아. 물이 튀기잖아, 참. 이 친구는 제법 잘 참는데. 독종이라 그렇지. 쓰발, 암만 생각해도 때려치우고 장사나 할까. 이번이 보너스 타는 달인데 (…중략…) 이젠 버둥거릴 힘도 없다. 정신이 ……정신이 혼미해져가기 시작한다. 진흙뻘 속으로 서서히 빠져드는 느낌. 발목……무릎…허벅지…허리, 그리고 이젠 가슴팍까지 깊이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 물소리…콸콸콸…… 콰르르르. 이윽고 턱까지 차오르는 진흙, 쇠바퀴소리. 거대한 탱크의 바퀴가 보인다.'
>
> (임철우, 「붉은 방」, 79쪽)

꽤 길게 제시된 위의 인용이 보여주는 것은 「붉은 방」에 한꺼번에 혼재되어 있는 일상과 비일상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비현실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일상이고 비일상인지의 경계는 불확실하다. 조금만 더 견뎌내 보자고 묶인 몸으로 미친 듯 버둥거려보지만 오기섭은 '폭포 밑 천길 물웅덩이 속으로 아스라이 곤두박질쳐 가라앉'는 것 같을 뿐이다. 거대한 폭포수가 그의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올수록, 숨 쉬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귓가로 들려오는 사내들의 목소리와 TV 속의 소리가 더 선명히 들릴수록 그는 자존감을 잃어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견뎌내 보자는 오기섭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게 고문 그 자체보다 일상의 소리라는 데 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내의 콧노래를 들으며 오기섭은 '인간을 저주'하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미치도록 증오하고 저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바로 그 순간, 오기섭은 '믿을 수 없으리만큼 맹렬하게 치밀어 오르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일상과 비일상의 혼재 속에서 더욱 더 선명히 들려오는, '데드마스크'를 쓴 TV

의 소리는 그를 살고 싶게 만든다.

> '살고 싶다. 난 살아야 한다. 죽어선 안 돼. 아아, 나는 헐떡이며 번쩍 눈을 뜬다. 그리고 목구멍이 찢어져라 외친다.
> 사, 살려주시오! 말하겠소. 뭐든지, 시, 시키는 대로 다 말하겠소. 모두 다!
>
> (임철우, 「붉은 방」, 80쪽.)

뭐든 시키는 대로 다 말하겠다는 그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냐. 사실대로 털어놓으라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내들의 말에서 확실해지는 건, 보여지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그리고 뒤이어 '사실대로 자백하겠소.'라는 오기섭의 말은 '이중사고'를 해야만 하는 빅브라더의 세계에서처럼 오기섭이 서 있는 공간도 살기 위해서는 '진실'로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오기섭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 오기섭의 '큰아버지'라는 비가시적 존재가 등장했음이 중요하다. 실재하나 현실에 있지 않은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과 다름 없는 '큰아버지'의 등장은 그의 살기 위한 '자백'이 '진실'이 되게 만드는 비가시적 실재이기 때문이다.

>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나는 예감한다. 천천히 눈을 뜬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치의 여백도 없이 온 시야를 가득히 물들이며 쏟어져 내려오는 단색의 세계—그 피빛 세상. 왜일까. 어느새 눈 자위에 까닭 모를 눈물이 피잉 괴어온다.
>
> (임철우, 「붉은 방」, 81쪽.)

핏빛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는 오기섭에게 최달식의 분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형상이다. 그의 눈에 비

친 '야릇한 희열과 쾌감', 그리고 '철저한 증오와 폭력' 행위는 오기섭으로선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오기섭이 최달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달식'의 트라우마와 그의 가시적 폭력 행위는 비가시적 대상을 향한 분노가 투영된 가시적 상대에게 행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실제적 죽음의 형상으로 남아 있는 '붉음'의 트라우마는 최달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왜 이곳에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오기섭과 달리 최달식은 오기섭을 당연히 자신이 있는 '붉은 방'에 와야 할 '나약한 동물'이자 '짐승'으로 인지하고 있다. 즉 가시화된 것처럼 보이는 최달식의 분노표출은 사실은 그의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분노 표출이 실재화되어 물리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이때 분노 표출 대상은 오기섭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달식의 트라우마를 만든 근원인 아버지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가족을 몰살당한 달식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복수의 대상을 실체화하는 것이었다.

> 봐라, 달식아.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둬야 해. 바로 이놈들이 빨갱이들이여. 느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죽인 철천지원수란 말이다. 원수여 원수. 빨갱이는 모조리 원수다.
>
> (임철우, 「붉은 방」, 39쪽.)

하지만 아무리 '빨갱이'란 이름을 붙인 이들을 죽여도 그의 분노는 여전히 살아 숨 쉰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없다.

이건 엄연히 하나의 전쟁이다. 말하자면 피차 속고 속이는 치열한

싸움판인 셈이다. 싸움판에 인정은 가망찮다. 죽느냐 죽이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것뿐이다.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를 속여야 한다. (……)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인간이란 건 원래가 그런 교활하고 더러운 족속이니라. 너나 없이 얼굴엔 가면을 쓰고, 타인을 속이기 위해 한시도 쉴 틈 없이 눈알을 굴리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란 짐승이다. 더더구나 머리에 빨갱이 사상을 담고 있는 놈들은 절대로 호락호락 상대해선 안 된다.)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신조라고 해도 좋다. 사실 그건 아버지의 말이기도 하다.

(임철우, 「붉은 방」, 59쪽.)

조부모의 죽음도 아버지의 죽음도 아들 한수의 죽음도 모두 '빨갱이' 때문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도 어머니의 치매도 대학도 못 간 자신의 신세도 모두 '빨갱이' 때문이어야 한다. 최달식은 '빨갱이'를 처단하는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달식이 보여주는 치유방식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붉은 방' 안에서 그가 느끼는 건 '평등'이다. 다음은 최달식이 살아남기 위해, 그에게 덧입혀진 상처를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죄를 짓고 이리로 끌려오면 누구나 똑같은 알몸뚱이 개구락지 꼴이 되어야 하니까 말이다. 생각해보면, 이처럼 공평하고 평등한 질서와 정의가 또 어디에 있으랴 싶다. 사장이고 전무고 교수고 박사고 품팔이꾼이고 노가다고 의사·목사·창녀·귀부인·학생·장사아치 할 것 없이, 직업귀천도 신분차별도 없애주는 여기, 우리들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민주사회의 법이요 질서요 정의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다.

(임철우, 「붉은 방」, 66쪽.)

작은 짐승 앞에서야 평등을 느끼는 달식이 말해주는 건, 그의 유산된 트라우마와 상처가 낳은 가시적 폭력의 결과물, 즉 폭력의 실체다. 달식의 눈에 오기섭은 '작은 짐승'이다. '붉은 방' 안에만 존재하는 '작은 짐승' 앞에서 비로소 '평등'을 느끼는 최달식에게 '붉은 방'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곳이 되었다. 이미 일상과 비일상은 경계 지을 수도, 분리될 수도 없다.

'붉은 방'으로 향하는 최달식의 발걸음은 그의 목을 죄는 치매 걸린 어머니와 매일 같이 어머니를 정신병원이나 감옥과 다름없는 요양원으로 보내자고 말하는 아내, 불쌍한 아들 한수의 그림자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 것과 달리 아주 가볍다. '이 방 저 방에서' 들리는 '고함소리와 신음소리'는 달식에겐 '활기있게 흘러나오'는 소리이다. 그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는 '붉은 방'을 향해 걸어가면서 달식은 생각한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붉은 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붉은방」, 90쪽.)" 온 방 안으로 가득히 쏟아져 들어오는 핏빛의 바다, 최달식은 그 속에서 '쾌감 같기도 하고 통증 같기도 한, 어떤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이 방이 '아늑하고 친숙'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에게 '붉은 방'은 일상을 벗어난 비일상이면서도 또 하나의 일상인 것이다.

오기섭의 '분노'는 '붉은 방'을 나선 후에 시작된다. 최달식이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겨누어야 할 분노의 대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큰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에서 분노를 겨눌 수 있는 대상은 될 수 없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내들에게 잡혀가면서도 바로 이상준을 떠올리지 못한 건, 그에게 이상준을 숨겨준 행위는 '자신의 나약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자책감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70쪽)와 함께 그가 떠나고 난 후엔 그를 숨겨주었단 사실 조차 잊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분노와 수치심뿐이다. '붉은 방'에서 벌거벗은 짐승의 상태로 그의 머릿속을 채우는 건, "식육점 진열장 안의 붉은 불빛, 그리고 그 안에 가득히 걸려 있는 짐승의 빨간 살덩어리, 앙상하니 드러난 갈비뼈, 허벅지 바로 아래 부분부터 뭉툭하니 절단된 채 걸려 있는 소와 돼지의 다리(68쪽)"의 형상들뿐이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붉은 방'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기섭에게 남은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 아하하하. 오호호호호. 텔레비전 화면의 남녀들이 호들갑스레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나는 차마 눈을 감아버리기도 한다. **까닭도 대상도 알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을 떨게 만든다.
>
> (임철우, 「붉은 방」, 92쪽.)

위의 인용문은 오기섭의 행방을 잃은 분노를 잘 보여준다. '붉은 방'에 들어선 후에야 상기된 이상준을 원망해보지만 사실 오기섭은 자신의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분노의 대상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오기섭의 고민 뒤에, 자신은 허술한 함정에 빠진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그의 독백은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 이 순간에도 어느 숨겨진 밀실 혹은 지하실에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서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행방 따위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은 채 참으로 태연하고 태평스럽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아니, 누구보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 그랬었다. 칠판에다 시험문제를 풀어가면서, 무심히 거리를 지나면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무심히 거리를 지나면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텔레비전 앞에서 턱을 괴고 엎드려 프로야구를 보

> 면서, 나는 **바로 그 똑같은 시간 이 땅 어딘가에 그렇듯 괴이하고 기묘한 붉은 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아예 상상조차 못하고 지내왔던 것이다.
>
> (임철우, 「붉은 방」, 94쪽.)

'기괴하고 기묘한 붉은 방'은 어디든 존재한다. 「붉은 방」이 지닌 '정치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붉은방」이 현재적 치유를 위해 왜 지금 다시 읽혀야 하는지는 보여주는 핵심이기도 하다.

4. 맺음말 : 역사와 정치로서의 문학 읽기, 상처치유의 시작

지금까지 본고는 임철우의 문학을 통해 역사적 상처가 개인의 일상에 침범될 때 그 폭력이 어떤 형상을 띠고 실체가 되어 나타나는지, 상처가 어떻게 트라우마가 되어 새로운 상처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의 임철우 문학 읽기는 80년대를 읽는 것이면서 50년대를 읽는 것이고, 지금 현재를 읽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시간은 하나로 엮여 있다. 「붉은 방」과 「직선과 독가스」, 「곡두운동회」 등이 보여주는 '시간의 연속성'은 지금도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상처치유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상처 치유의 시작은 기억을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인지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출되어야 할 분노의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향하거나 뒤바뀔 때, 상처는 오히려 새로운 탈을 쓰고 다른 이름으로 계속 생성될 수밖에 없다. 모든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처가 난 직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결국 흔적을 남기고 트라우마로 작

동하게 된다. 「붉은 방」이 말해주는 건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면서도 상처치유의 시작이 쉽지 않은 부분임을 말한다. 오히려 새로운 혹은 또 다른 이름을 덧댄 상처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유의 시작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일상과 비일상의 구분 불가능성을 통한 소설 「붉은 방」의 문제제기는 가시화된 역사의 흔적보다 비가시화된 기억의 흔적에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시대가 겪은 아픔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상 속에 당연한 듯이 들어와 있는 비일상을 분리하는 것부터 논의해야한다. 임철우는 「붉은 방」을 통해 끊임없이 질문한다. 지금 우리는 일상을 살고 있는가. 비일상을 살고 있는가.

또한 「붉은 방」은 소설이 보여주는 치유방식이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치유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역사를 제대로 마주설 수 있게 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역사를 우리가 어떤 얼굴로 바라봐야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임철우의 문제제기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수많은 기억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읽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향후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이자 문학 읽기의 방향이기도 하다.

지금에 와서 '문학을 통해 정치와 사회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진부한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이 지니는 정치성의 무거움과 현재적 치유의 가치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선 우리는 정치가 권력의 개입이 들어가야지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일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와 관련한 모든 것들, 분쟁과 관련한 모든 것들, 역사와 관련한 모든 것들이 '정치'이다. '문학' 그 자체가 정치인 것이다.

랑시에르는 이를 두고 "문학의 정치"는 "문학이 시간들과 공간

들, 말과 소음,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등의 구획 안에 문학으로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8]고 말한 바 있다. 문학을 통해 역사의 상흔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 기억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수많은 주체들이 역사적 기억을 토해냄으로써 치유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길이 되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임철우, 「붉은 방」,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1988년도 12회), 문학사상사, 1988.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1989년도 13회), 문학사상사, 1989.
임철우, 「곡두 운동회」(1995), 『아버지의 땅』, 문학과 지성사, 1984.

2. 논문 및 단행본

김미나, 「현재적 모순과 비극적 역사의 기록-임철우의 「붉은 방」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통권 11호, 2011. 33~60쪽.
김주선, 「임철우 『봄날』의 재현형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7, 2.
우찬제, 「역사적 상처와 서정적 치유 - 임철우의 소설」, 『문학과 사회』(2010년 겨울호), 제23권 제4호, 2011, 424~436쪽.
유홍주, 「임철우 소설의 의미 강화 기법 연구-『봄날』 이전의 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3권, 2010, 101~122쪽.
이동재, 「1980년대 임철우의 소설에 대한 한 가지 독법」, 『우리말글』 제65집, 우리말글학회, 2015, 233~263쪽.
한순미, 「주변부의 역사 기억과 망각을 위한 제의-임철우의 소설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방식과 그 심층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38, 2011, 161~191쪽.

8)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11쪽.

전수평, 「「붉은방」에 드러난 국가폭력 양상 고찰」, 『배달말』 59, 배달말학회, 2016.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투고일**: 2018. 2. 19. **심사완료일**: 2018. 3. 15. **게재확정일**: 2018. 3. 21.)

손미란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sfsfs1004@ynu.ac.kr

[Abstract]

Inherited Wounds, Inherited Trauma

- Reading Allegoria Implied in Red Room by Lim Cheol-Wo -

Son, Mi-ran

Although Lim Cheol-Wo is an author who represents May Literature, his works are not limited to materials related with the May Kwangju Uprising. Therefore, I would examine the generational trauma and its treatment methods through his writings Red Room that won Yi Sang Literary Award (1988) and accordingly helped the author strengthen his position.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he fact that was discovered and the truth that was revealed. It is not easy to identify visualized facts and nonvisualized truths, and understand their implicit meanings. Of course, it is still important to ascertain the facts of the historical trauma in terms of narrativization of the manifested events becaus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can be demonstrated from this. However, it is required to determine a nonvisualized allegoria which refers to allos (different) - agoreuo (speaking) rather than a visualized issue.

The process to find the historical wounds through literature will be the best way to show how the numerous persons who would have to wholly accept the historical memories move forward to the next step of healing by coughing up the memories.

Keywords: Lim Cheol-Wo, Red Room, allegoria, visualized, nonvisualized, generational legacy, trauma, wound, May 18 uprising of Gwanju